

1. 오늘은 이수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의견 나누실 분은 말씀해주십시오.
2. 오늘 예배 후 부서별로 애찬합니다. 주 안에서 따뜻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애찬 후에 바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1:00-1:30). 함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새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4. 오늘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함께 영화를 보는 새맘 영화모임 <수영모>에서 이달의 영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을 선정했습니다. 관람 일시와 상영관 정보는 새맘텔에 공지하겠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실 분은 현장섭 집사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대표: 우종학 집사).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이후 10년을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6. 6. 22(월) 오후 7시, *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실
7. 오는 6월 27일(토)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이 네 번째 정기포럼을 엽니다(기획위원장: 이수연 목사). 이번 포럼은 <신학교육과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와 신학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성찰하고 신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는 바랍니다.
* 일시: 2026. 6. 27(토) 14:00-17:00, * 장소: 백향나무교회 (방배역/내방역)

☞ 6월 셋째 주일 성서일과: 욥 28:12-28, 시 16, 행 17:16-34, 요 8:31-38

예배 후 간식 애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우님들과 나눌 간식을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간식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개의치 마시고 애찬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일 간식을 제공하실 분들은 친교부장(김혜경 집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새맘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2회 회당 50만원씩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김수연 집사/010-6250-9491)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 계좌번호 안내

국민은행	472501-04-069256	예금주:새맘교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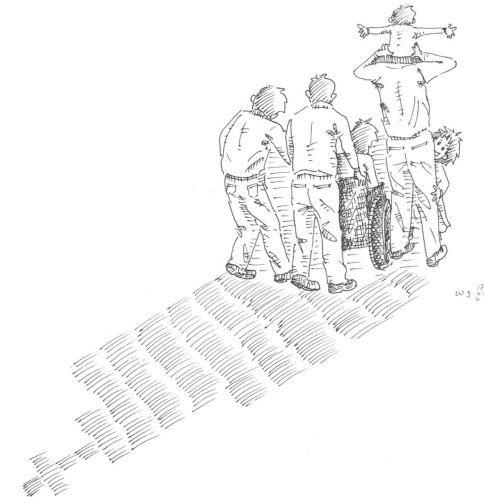
※ 지정헌금은 '송금인송금처'를 작성해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평화누리')



개혁의 길을 걷어가는 교회

(마가복음 1:14-15)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성도
본질을 잃은 한국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교회
불의한 세상의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11:00
 예 배 장 소 | 엔피오피아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새 맘 카 페 | <http://cafe.daum.net/semam2010>

▶ 주 일 예 배 순 서

예배 10분 전부터 조용히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표는 일어서서	인도 이 명 희 반주 김 주 영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여는 찬송 ▲ -----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 함 께
성 시 교 독 ▲ ----- 교독문 70. 이사야 42편 -----	다 함 께

인도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회 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인도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회 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인도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회 중/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인도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회 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인도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회 중/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경 배 와 찬 양 -----	이 지 은
기 도 -----	서 민 정
봉 헌 ▲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3--	다 함 께
봉 헌 기 도 ▲ -----	인 도 자
성 경 봉 독 ----- 요나 3:1-10, 사도행전 16:6-15 -----	김 정 은
오늘의 말씀 -----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 -----	이 수 연

공 동 체 를 위 한 기 도 ----- 다 함 께

1.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아픈 일들이 섞여 있는 우리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영성을 더하게 하소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한 심정을 가지게 하소서.
2.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과 실현을 위해 뭉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모인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누구 하나 의인이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고 죄 갚아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고백하며 항상 겸손하게 앞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3.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지구 곳곳에 가난과 죽음과 폭력,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손길이 뻗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바랍니다.
4.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진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해고되었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을 택하였습니다. 336일을 하늘 감옥에서 견뎌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꿈은 소박합니다. 언젠가 복직이 된다면, 세종호텔 연회장에 그동안 투쟁을 도와주고 응원해 준 고마운 동지들을 모두 초대해 손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자신을 던진 고진수님을 여여뻬 여겨주십시오. 투쟁이 끝날 때까지 연대하게 하소서.

주 기 도 송 -----	다 함 께
알 리 는 말 씀 -----	4 구 역
파 송 의 노 래 ▲ ----- "평화가 있기를" -----	다 함 께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공 동 축 도 ----- 다 함 께

자비로우셔서 니느웨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불완전함 속에서 '그래도' 완전함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일상의 모든 걸음 위에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